

해수부, 수도권 제2순환로 인천~안산 구간 재검토 요구...인천시, 당초 '찬성'에서 한발 물러 '의견 없음'으로 선회해 새국면

윤 이승욱 기자 | 2020.07.28 19:15 승인

해양수산부가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도 당초 국토부의 계획에 찬성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국토부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제2순환로 건설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3일 해수부와 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국토부가 마련한 제2순환로 인천~안산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 노선은 송도 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토부는 이 구간을 두고 송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에 일반 교량을 설치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1번안을 대안으로 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의견을 물은 상태다.

해수부는 국토부의 1번안이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송도 갯벌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갯벌을 물리적으로 훼손, 그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또 람사르습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습지이고, 철새 서식지이기에 1번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한국의 습지보호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해수부의 이같은 지적에 동의한다. 람사르습지가 국제적으로 의미있는 습지이기에 도로를 건설하면 국제적인 망신 사례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람사르 습지를 훼손하면 이를 다시 복원하기 전까지 나쁜 사례로 올라가는데 이번 도로 건설은 복원도 할 수 없어서 더더욱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며 "국토부 안과 달리 습지 훼손 우려가 적은 2번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번안은 갯벌을 피해 육지를 걸쳐 교량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도 최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당초 시는 국토부의 계획 원안 추진, 즉 1번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환경단체 등과 2차례 회의를 했고 결국 한발 물러서 시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는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논의, 개발보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간 논리 싸움에서도 시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제2순환선 건설과 경제성 확보, 환경보호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별도 용역을 통해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기자